

당송사(唐宋詞) 유파(流派) 형성의 알고리즘

윤희지(한국외대)

본 논문은 당송사 유파의 형성과 유형분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단서를 탐색해 보고자 한 것으로, 필자는 그동안 당송사 유파 분류에 있어 완약과 호방의 이분법을 즐겨 사용해 왔지만, 이는 풍격 개념으로 유파 분류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중에서도 완약이 호방보다 부정적이라 보는 편견은 더욱 문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송사 유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송사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해 보인다. 단지 이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제시한 유파의 유형에 따르면 1)작가들이 의식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와 2)동일한 사회환경 내에서 서로 비슷한 풍격의 창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유형으로 형성된 경우가 있는데, 북송말기 이전까지는 조직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고 창작원칙을 제창했던 유파가 존재하지 않아 1)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2)의 유형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2)의 유형은 다시 ①장기간 보편성과 경향성을 구비한 사단의 기질이나 심미경향을 가리키는 유형 ②동시기에 취향과 풍격을 공유하며 교유 및 창작 등의 사교를 통해 사인 집단을 형성한 유형 ③동시기에는 유사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특정한 제재와 체식, 풍격 등이 후대 사가들에게 포착되어 일정한 유파로 인정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유파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진정작과 첨안태가 제시한 것처럼 유파 분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필자는 본문에서 유파를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선집으로 묶여 하나의 경향성을 드러내거나 교유·창화를 통한 사교활동을 했거나, 당송사 명가들에 의해서 이미 분류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송사유파는 5대 유파(화간사파, 유영사파, 주방언사파, 신기질사파, 강기사파)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질의1) 3파설, 4파설, 8파설 그리고 필자가 제시한 5파설은 모두 인물을 중심으로 그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당송사 유파를 나눌 때 동시기나 같은 지역별로 경향성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유파 연구에 있어서는 유독 이러한 관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질의하고 싶다.

질의2) 풍격의 개념으로 유파를 분류하는 것은 사실 가능해 보인다. 완약과 호방으로 유파를 분류하는 것이 무리인 이유는 당송사의 유파를 이분법으로 나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골계사파 같은 경우는 풍격의 개념으로 유파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고 싶다.

질의3) 사의 유파는 당·송대만 논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다량의 원·명·청대의 사가 당송사 유파와 어떠한 맥락 관계를 지니는지도 궁금하다.

사실 유파에 관한 문제는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필자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어야지만 올바른 유파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